

전국 최대 '한우브랜드' 탄생

전남 서부 8개 축협 참여 '녹색 한우' 출범식

6월 출하...동부권 '지리산 한우' 이어 두번째

전남 지역 축협들이 대거 참여한 전국 최대 규모의 한우 광역브랜드 '녹색한우'가 탄생했다.

녹색한우 광역브랜드 사업단(단장 나상옥, 목포·무안·신안 축협장)은 지난 18일 무안 승달에슬러관에서 전남 서부권 한우 광역브랜드 '녹색한우' 출범식을 갖고 전국최고 품질의 한우생산에 나섰다.

동부지역의 지리산순한우에 이어 전남에서는 두번째로 출범한 서부권 한우 광역브랜드에는 목포·무안·신안, 강진, 광주, 나주, 영암, 장성, 해남, 화순 등 8개 축협이 참여했다.

녹색한우 사업단은 지난해 7월 각 지역 축협조합장들이 사전협의를 통해 한우 광역브랜드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5개월에 걸쳐 브랜드 네임과 로고 개발, 참여농가 순회 교육 등 준비기간을 통해 1천100여 한우농가, 사육두수 6만1천마리가 참

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브랜드 가 탄생하게 됐다.

사업단은 통일된 사유과 가공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상품을 출하할 계획이다.

녹색한우는 전남도와 각 군 등 자체와 참여축협 그리고 농가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춰 전국 최고의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한우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남경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이덕수 농협전남본부장과 지역축협 조합장 및 한우농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박지사의 축사와 브랜드명 선포,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30억원 전달식, 전국 최고 품질의



녹색한우 광역브랜드 사업단이 지난 18일 무안승달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병철(참여농가 대표)·유영란(고향주부모임 전남도회장)·윤기호(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김종철(전남도의회 의장)·박준영(전남도지사)·남경우(농협중앙회 축산대표이사)·이덕수(농협전남지역 본부장)·나상옥(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씨.

쇠고기 생산을 위한 농가결의, 관련기관들의 지원다짐식 등이 마련됐다.

전남도와 농협관계자, 농가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격 한우를 생산, 전국 최고의 광역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동부지역의 지리산 순한한우와 함께 전남의 한우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DDA·FTA 등으로 촉발된 농촌·농가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비수도권 창업 제조업

투자금액 10% 보조금

광주·전남중기청 내년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2007년 1월 이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한 기업 등은 제외된다.

비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에 한한다.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

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5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임대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금액의 인정시점은 창업일 이후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등록 의무가 아닌 50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소요된 금액에 대해 산정한다. 보조금 지급 확정시 5인 이상의 고용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http://changupnet.go.kr/>)과 자체로 하되 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 등 창업관련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직원 아이디어 제안 열기

포스코 광양제철 작년 3천여명 17만 건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앞다퉈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을 내놓아 자동차강판의 품질 개선과 제철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내 제안활동은 현장에서 벌견되는 각종 낭비요소와 개선사항을 전 직원의 자발적인 제안을 통해 개선해 나가자는 것으로, 지난 한해만 3천명의 직원이 총 17만 여건의 제안을 등록했다. 이는 2006년 제안건수에 비해 무려 10만 여건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광양제철소 직원 2명 중 1명이 제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처럼 제안활동이 활발한 배경에는 24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학습 동아리', 현장의 낭비요인을 발굴하

는 'QSS(Quick Six Sigma)', 현장 작업자가 자신의 기계를 직접 관리하는 '마이 머신(My Machine)' 등을 제안활동과 연계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서별로 수립한 아이디어를 경영총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영성과 창출과 연관된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광양제철소는 제안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우수한 제안활동을 펼친 이들을 제안왕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2007년 제안왕은 품질기술부 흥두기(금상), 품질기술부 화학시험과, 이태성(은상), 설비기술부 중앙설비과, 강명신(동상), 화성부 화성공장)씨 등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편의시설 확충 '고객감동' 제공"

혁신도시·수완지구 사업 박차"

'사옥 이전' 토공 한우석 광주전남본부장



"사옥 이전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보다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상무지구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한우석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20일 "고객들의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 새로운 '고객 감동'의 일터에서 나주 광동혁신도시와 광주 수완지구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かける"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지난해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나주혁신도시 기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큰 성과를 남겼다"며 "올해는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광주 수완지구와 첨단 2지구, 선운지구 등의 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또 "토지공사는 국토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공익책무를 담당하는 만큼 지역민들에게 '현신(Devotion)'과 '애정(Affection)'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장애인·노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친환경·친인접·친환경 등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21일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서구 치평동의 신사옥에서 입주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다짐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연예인 당구대회 개최

총 전시장에서 김구라·이광기·김창렬·김경민·변기수·이기영·데프콘·정명훈 등 인기 연예인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1회 모히비배 연예인 당구대회'를 열었다.

기아차는 지난 19일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국내영업본부 1층 전시장에서 김구라·이광기·김창렬·김경민·변기수·이기영·데프콘·정명훈 등 인기 연예인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1회 모히비배 연예인 당구대회'를 열었다.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 판매 고심

광주시

광주시가 설 대목을 앞두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재래시장 연합회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재래시장 상품권 2종(1만 원권, 5천 원권)을 발행, 시중 은행과 재래시장 인근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극심한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5억원 어치의 상품권의 재고로 쌓아온 새마을금고는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할당하는 방식의 고육책을 마련하는 등 판매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 5억원 어치의 재고분 가운데 70~80%는 공무원들이 소비하는 한편 나머지는 지역 기업체와 시민단체 등에게 구입을 권유 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내 재래시장 25곳 중 14곳의 '등록 재래시장'에서만이 상품권이 유통되도록 제한된 것도 판매 부진의 한 원인으로, 근본적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위한 디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재래시장 살리기 등 차원에서 상품권을 많이 애용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 농협 인사

1~4급 46명 승진·전보

농협중앙회는 20일 농협광주·전남 지역본부 소속 1~4급 직원 46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0명〉

이번 인사에서 김보영 담양군지부장이 2급에서 1급으로 승진, 구례농업교육원장에 임명됐다. 정명순 회순군지부장과 박삼종 광주 풍암동 지점장도 1급으로 승진했다.

또 조영환 전남본부 대불산단 입주업체와 투자유치 기업에 최대 12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160억원 ▲벤처기업 육성 20억원 ▲

중소기업 유통망 구조개선 20억원 ▲경영 안정 800억원 ▲소상공인 창업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올해 대불산단 입주업체와 투자유치 기업에 최대 12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160억원 ▲벤처기업 육성 20억원 ▲

기획·운영 1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160억원 ▲

베이징카오야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죽어도 먹고 싶어하는 맛의 한우를 소개합니다. 카오야, 카오리와 함께 맛을 그려보세요.

복경동 오파구이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죽어도 먹고 싶어하는 맛의 한우를 소개합니다. 카오야, 카오리와 함께 맛을 그려보세요.

각 종 단체 계모임 겸수

972-5382

신축완장기념 일식요리의 명기 청하

그동안 청하를 고기로 먹지 않아서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로 청하에 고기로 고집하고자.
여기서 청하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로 청하으로 만든 일식요리와 청하를 먹으시면 좋습니다.

대·소연회/상연회/축종 모임 및 집회
단체행사/주차장원비

清河

전화번호 062-223-7037 / 224-5002